

로또 복권과 대구 참사

김은남 / 시사저널 문화팀장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 어떤 벤처 회사 직원들이 평소 로또복권 사던 돈을 모아 대구 지하철 참사 위로 기금으로 내기로 했단다. 그렇잖아도 텔레비전 화면 상단에 뜬 기금 모금 현황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차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그게 너무 당연한 일 같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은 희망 때문이다. 비록 당첨 확률이 '골프장에서 골프 치던 사람이 맑은 날 벼락에 맞아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방울뱀에 물려 죽을 확률'에 육박할 정도로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자기에게 올 수도 있을 그 짜릿한 당첨의 순간을 꿈꾸며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 주머니를 연다.

그러나 대구 지하철 참사는 다르다. 보통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며 느끼는 감정은 분노, 절망, 참담함 같은 것들이다. 물 난리나 산불 같은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 응당 발동되는 동정심이 이번에는 잘 일지가 않는다. 거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속속 드러나는 관재(官災) 내지는 인재(人災)의 흔적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다. 나도, 내 가족도 재수 없으면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객관화시켜 보기도 어렵다. 곧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분노하고 낙담하게 된다. 사는 게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불확실한 사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사회, 이른바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일수록 복권은 더 잘

팔린다.

도박 중독자를 위한 치료 센터를 운영하는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준 일이 있다. 도박 하는 사람들은 판돈이 클수록, 자기가 게임을 주도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점점 더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고 한다. 내가 기술과 지식을 조금만 더 연마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자기 통제력의 착각이다. '요행'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 도박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좀체로 중독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복권 중에서는 이런 요소를 가장 많이 함유한 것이 로또 복권이라고 한다. 로또 복권은 일단 전체 판매금에 따라 1등 배당금이 바뀌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판돈을 크게 높였다. 로또 복권은 또 복권을 사는 사람이 번호를 직접 선택하게 돼 있다. 자기가 번호를 선택했건 말건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은 8백 14만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번호 조합하는 방식을 열심히 연구하면 언젠가는...'이라며 헛된 꿈을 버리지 않는다.

이들은 앞으로도 복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설 것이다. 어차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복권을 사는 데서나마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는 듯한 착각을 맛보고 싶다는 사람들을 이제는 무슨 명분으로 막을 것인가. 이래저래 대참사를 일으킨 자들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PPFK